



“AI·반도체 미래 투자 아끼지 않겠다”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 회견

증시 선진화, 코스피 5000 열 것
실수요자 보호·값싼 안정 주력
산업 균형발전·균등 성장 추진
남북소통 재개, 공존의 길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 회견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해 이를 통해 국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2면>

특히 “시장 완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용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뤘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질문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취임 30일째인 이날 기자 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2시간가량 이어졌다. 기존의 연단을 철거해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거리를 약 1.5m까지 좁힌 상태로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을 본뜬 반원 형태로 배치되어 진행됐다. 연합뉴스

그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이라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남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며 “군

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

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의 봉욱을 발탁한 것과 관련 “검찰 개혁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사와 관련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지휘자(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자임을 대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의무다. 법률상 의무일 뿐 아니라 그렇게 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며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위고비 마구 처방 줄 잇는 품질 사태

비만클리닉 70% 진단도 안해
가성비 MZ 일반 비만약 선호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 출시 후 품질 사태를 빚을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진단 없이 무분별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가성비 비를 따지는 20·30세대는 위고비에 대한 기피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3일 본지가 비만클리닉 의원이 밀집한 서울 신도림과 종로 일대를 취재한 결과 10곳 중 7곳은 위고비 처방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곳은 환자의 BMI 등 환자 상태 체크 없이 바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본지는 서울의 한 피부과를 직접 방문해 위고비 처방 과정을 확인한 결과 체질량지수(BMI)나 동반 질환 여부를 묻기보다 “샤넬다 맞아본 적 있느냐”는 질문만 받은 뒤 곧바로 처방이 이뤄졌다. 기사는 비만 관정을 받지 않은 일반 체형임에도 별다른 진단 없이 약을 받을 수 있었다.

위고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이다. 1회 주사에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한 달치 주사(4회)와 처방전까지 포함하면 약 47만 원이 필요하다. 가격 부담 때문에 20·30세대 사이에서는 오히려 일반 비만약으로 돌아서는 ‘가성비 이탈’ 현상도 보였다. 실제로 본지가 비만클리닉에 밀집한 서울 신도림 일대에서 처방을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을 취재했다.

A0형성은 위고비도 있는데 줄을 서서 비만약 처방받는 이유에 대해 “초반엔 효과 있다고 해서 맞았는데 일주일에만 한 번 맞는다면 가격이 비싸고 빠지는 속도가 느린거 같다”며 “차라리 일반 비만약이 싸고 간편해 다시 처방받으려고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분비내과 A0형장은 “위고비 처방 문의가 많지만 우리 병원에선 아예 하지 않는다”며 “조진 한 번에 처방이 끝나고 사후관리가 없어 부작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싼 가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정조준하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중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자

택 등 13곳에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수사 핵심은 2023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핀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멋진 해병 단북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났고, 다음날에는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우크라이나 양국 간 공여 협정에 가서명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2023년 ‘주가 조작’ 개입 수사
우크라이 재건 연루 의혹도 규명

서 촉사를 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이후 주가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추진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 배경에 김 여사가 연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등이 주가 급등 시기 주식을 처분해 최소 1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3일에는 경찰로부터 ‘명태군 의혹’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다시 새겨보는 —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 저성장·고물가·고환율·고실업률
- 고질적 노사갈등
- 고조되는 양극화 갈등
-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노령화 사회
- 폭발적인 가계부채
- 위협받는 무역수지
- 가속되는 중국의 기술추월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박정웅 지음

그의 재능과 격려와 다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울린다. 혹독한 시련에도 불타올랐던 그의 도전정신과 위기에 맞섰던 불굴의 용기, 빛나는 발상력의 기록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난 뜨거운 열사의 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자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영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일 담판
- 03 모두 안 되던 전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채신, 더 질서는 사회... 통일을 위해 만났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쟁겼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민승 엔터테인먼트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